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연합회’ 22일 출범

지역 유족회장 중심 ‘유족연합회’ 해산...진상조사 등 연대 상임대표 이규종 구례회장·부대표 서장수 여수회장 선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전국 규모 유족연합회가 오는 22일 창립될 예정이다.

여수사건 유족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별 유족회 회장 중심의 ‘유족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국 규모의 유족연합회를 출범시켜 강력한 연대와 단결, 진상조사와 피해 대책·방안 강구 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유족회장들은 지난 1일 순천 여순항쟁 역사관에서 창립 회의를 갖고 여순10·19항쟁전국총연합(여순전국유족총연합)으로 단체 명칭과 정관 주요 조항을 확정했다.

이날 상임대표에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을 부대표에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을 선출했다. 대변인은 이형용 유족 2세가 맡는다.

유족회는 22일 오후 2시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순전국유족총연합은 정관 주요 조항인 명칭,

목적과 사업, 회원 자격과 운영위원회 및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22일 창립대회에 맞춰 유족들의 결의를 모은 창립취지문과 활동 방향,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유족총연합은 출범과 동시에 여수사건의 역사를 비롯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대변인을 통한 언론 등 각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사건 특별법 시행과 보완 입법 등에 관해 유족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법 시행 관할 정부기관에 협력 지원 및 시민사회단체·학계 등과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여순10·19바로 알리기에 전국유족총연합이 최일선에 나설 것도 다짐한다.

이규종 상임대표는 “여수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됐으며 시행령에 의해 피해자 신고 접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책임



여순10·19항쟁전국총연합(여순전국유족총연합)창립을 위해 순천시 여순항쟁역사관에서 지난 1일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 역할이 미흡하다”며 “74년이 지나 자료·증언 등 여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규명이 만만치 않음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유족들이 어떻게 나서느냐는 역할의

문제로 특별법에 정의된 피해지역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에 유족회를 확대 발족시켜 나갈 것이며 전국 각지에 사는 유족들과 총 연대에 강력한 유족들의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공모 26일~10월 31일 접수

고흥군이 평전(平田) 송수권 시인의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선양하고, 문향 고흥을 널리 알리고자 ‘송수권 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송수권 시문학상은 오는 26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응모 대상은 2019년 9월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 출간된 시집으로 다른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선작은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시문학상 분야 최고상인 본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올해의남도시인상에 1000만원, 올해의 젊은시인상에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수권 시인(1940~2016)은 고흥에서 태어나 1975년 문학사상 신인상 부문에 ‘산문에 기대어’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소월시문학상과 정지용문학상,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수상한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청년들 여수로 모이자! 시, 17일 청년 페스타 개최

여수시가 오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남 문예회관에서 ‘청년 페스타’를 개최한다.

청년 페스타는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지난해 청년정책 토크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열린다.

행사는 우수활동가 시상, 여수청년선언 낭독에 이어 샌드아트와 노래, 댄스 등 청년 문화 예술인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되고 창업과 취업, 심리상담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구례군 155세대 290만원

구례군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155세대에 2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해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5%이상 10%미만 연 최대 3만5000원, 10%이상 15%미만 최대 7만원, 15%이상 최대 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 매실 활용 ‘겨우살이’ 재배 성공

채취 쉬워 농가소득 증대 기대...항암·당뇨 완화·면역 증강 효과

광양에서 매실 고품목을 활용 ‘겨우살이’ 인공 재배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매실농원(대표 변양모)이 매실 고품목을 활용해 ‘겨우살이’를 인공 재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야생 ‘겨우살이’는 일반적으로 고산지대의 키 큰 나무에 기생해 채취가 매우 어려웠으나, 변양모 농가가 가진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매실, 모과, 살구나무, 산수유 등 작목을 활용해 ‘겨우살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채취도 쉬워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겨우살이는 체내 암세포를 죽이는 ‘비스코톡신’과 ‘렉틴’ 성분 등을 함유해 항암효과가 높고 당뇨 완화, 면역 증강에 좋은 약용식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연산은 1kg에 5만~10만원선에 거래되고, 인공 재배 겨우살이도 3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암세포에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겨우살이를 포함한 음료와 약품 개발을



정인화(왼쪽) 광양시장이 매실 고품목을 활용해 겨우살이 인공 재배에 성공한 농가를 방문해 재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광양매실농원의 특허는 숙성시킨 겨우살이 종자를 나무 표면에 붙여 인공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2013년 특허 등록했으며 이후 연구가 계속됐다.

광양시는 매실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2023년부터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겨우살이가 매실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효자작물로 성장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심청 어린이 대축제’ 안착하나

지난해 심청축제 개편 성공...10월 27~30일 체험 행사 등 다채

곡성군이 심청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축제로 특화해 이어가기로 하면서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관심이다.

곡성군은 심청 어린이 대축제를 오는 10월 27~3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20여 년째 운영해오던 심청축제를 심청 어린이 대축제(사진)로 전환해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

5월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없는 점에 착안해 가을 어린이 축제를 기획하는 의도로 개편을 단행, 3일 축제 기간 동안 2만3000명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난해 성공을 바탕으로 관람객 주 대상층을 어린이로 정하고, 축제 개최 기간부터 청소년 시험 종료와 핼러윈 시기에 맞춰 10월 하순으로 정했다.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올해는 인형을 활용해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또 쓰레기 절감, 기후 대응, 동물 보호 등 환경적 메시지도 다양하게 담아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전면 해제로 올해는 입장 제한이 없는 만큼 관람석을 증설하고, 푸드트럭 등 먹거리 부스와 체험 코스 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축제 개최 공간도 섬진강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을 크게 확장해 가을꽃으로 채운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심청 축제가 어린이 축제의 2회째 진행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업체를 선정 중인데, 심청의 효(孝)를 매개로 한 대표 어린이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